

## 2025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기)

### 제목

### 헌혈, 가장 아름다운 용기

어느덧 나도 40대에 접어들었다.

삶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가끔 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켠을 저릿하게 만든다.

대학원생이었던 27살, 수업과 팀활동, 논문 등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백혈병(혈액암)이라는,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진단을 받으셨다. 그때 나는 어쩌면 곧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은 아닐 거야. 희망을 놓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백혈병 항암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하루하루가 마치 긴급상황처럼 돌아갔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수혈은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직접 수혈자가 있으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이 헌혈증을 가진 환자입니다.”

병원 관계자의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순간, 나는 헌혈증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우선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상 서랍을 뒤졌다. 몇 장 남아 있던 헌혈증을 꺼냈을 때, 마치 구명줄을 발견한 사람처럼 가슴을 쓸어내렸다. 남동생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 모두 헌혈증을 모아 보내주었고, 그 작은 종이 한 장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어머니의 항암치료는 여러 차례 계속되었고, 그중 두 번째 치료를 마친 후, 마치 기적처럼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체력은 이미 많이 약해졌고, 남은 절차인 골수이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부모자녀 사이는 안되고,

형제자매 중 유전자형이 일치할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의사의 말에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다. 어머니는 7남매 중 한 분이셨고, 다행히 그중 외삼촌 한 분과 유전자형이 일치했다. 게다가 그 외삼촌은 대학시절 우리 집에서 살며 누나(우리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우리와 같이 가족처럼 생활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까지 취직을 한 분이셨다. 다른 친척보다도 매우 가까운 분이었기에 나는 다른 분보다 이 외삼촌이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이유에서든 수없이 감사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될 줄만 알았다.

하지만, 골수이식을 며칠 앞둔 날, 갑자기 외삼촌의 연락이 끊겼다.

“여... 연락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이식을 앞두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다른 분도 아니라 그 외삼촌이?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연락은 5~6년이 지나서야 다시 닿았다.

골수이식은 예전처럼 뼈에서 직접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물로 조혈모세포를 늘린 후 혈액을 통해 채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수혈하는 것처럼 되었기에, 나는 오히려 형제자매라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삼촌이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다른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던 걸까,

이유를 알 수 없어 수없이 자책과 원망을 오갔다. 나는 스스로도 그 부탁이 이기적인 일이었나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연락을 끊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다.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나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쉽게 와 닿지는 않았다.

어머니께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오히려 체념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동생이 싫은 건 안 하는 게 맞지. 그게 가족이지 뭐...”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고, 조용히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또 한번 가슴이 내려앉았다. 몇 번의 연락에도 답변이 없으신 외삼촌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시 기증자를 기다리며 수혈을 이어갔다.

이미 많은 헌혈증을 사용한 상태였고, 다시 시작된 수혈은 경제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무게로 다가왔다. 특히 혈소판 수혈은 조건이 더 까다로웠다.

6개월 이내 레이저 시술, 약물치료, 흡연, 음주...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때 또 한 번,

친구들이 내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말이 필요하냐? 당연히 해야지.”

그 후 주변에서 여러 명이 혈소관 수혈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기초검진에서 대부분 탈락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세 명만이 수혈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원 동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헌혈증 200장 모았어. 지금 당장 보내줄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응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었는지 모른다. 가족보다 친구들이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순간이었다. 나는 그렇게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던, 친구들이 건네 준 헌혈증>

어머니는 이러한 또 다른 도움과 지지 덕분인지, 무사히 모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렇게 5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헌혈증은 단순한 혈액 한 봉지가 아니라, 엄마에 대한 따스한 관심과 사랑이자, 희망이었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힘을 낸 것이다!

그러나, 5년 뒤...

야속하게도 백혈병은 다시 찾아왔고, 어머니는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시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

그 후 장례식장을 찾은 외삼촌이 조용히 빈소를 지키며 울고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 모습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연락을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끝수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어머니는 늘 동생을 걱정하고 그리워하셨다. 나는 씩씩한 마음을 안고,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말씀처럼 가족이니 이해하려 애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지금 돌이켜보면, 외삼촌의 심정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면서도 우리 어머니였다면, 남동생의 질병 앞에 당연히 달려갔을 것 같다. 친구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어머니와 함께한 5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받았다. 하지만 그 시간을 더 충분히 소중하게 보내지 못하고, 어머니께 더 잘하지 못한 나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후회의 마음이 가슴 한켠을 채운다.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갈 때마다, 사진을 꺼내거나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가슴 깊이 감사함이 밀려온다. 오늘따라 글을 쓰다 보니 늘 환하게 웃던 어머니의 모습이 무척이나 그롭다.



<환하게 웃으시던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 글을 빌려, 다시 한 번 그때 힘이 되어주었던 친구들과 대학원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혈증 한 장, 한 장이 모여 우리 가족에게는 무척이나 귀중한 5년이라는 시간을 선물해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슬픔도 잠시 어떻게 시간이 흘렀나 모를 정도로 경황이 없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께서 퇴원하실 때 같은 병실에서 함께 지냈던 분들이 우리가 가진 헌혈증을 부러워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남아 있던 헌혈증을 그분들께 나누어 드렸다. 언젠가 내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는 당장 생명을 잇는 귀한 우선권이 될 수 있기에, 주저하지 않고 나누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우리처럼 소중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나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수많은 헌혈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늘 말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헌혈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내게 묻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는 언제 헌혈할 수 있어?”

“우리도 참여하면 좋은 일이지?”

아이들의 그 순수한 물음에 웃음이 나왔고, 그 대답을 준비하며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헌혈은 10대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조만간 자녀들과 함께 팔을 걷어 올리고, ‘자랑스러운 팔’을 지닌 가족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가족이 받은 그 소중한 시간을 또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며...

### 헌혈, 소중한 나눔 그리고 용기

우리는 압니다. 헌혈이 얼마나 소중한 나눔인지...

그리고 그 일이 생명을 이어주는 일이라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피 한 방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간과 삶, 희망을 선물합니다.

헌혈을 한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이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또 하나! 골수이식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뼈에서 직접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물로 조혈모세포를 늘려 혈액을 통해 채취하는 방식으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 ▶ 헌혈은 가장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 ▶ 당신이 팔을 걷어 올리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용기를 내어 주세요!

오늘, 팔을 걷어 올려주세요.

그 따뜻한 용기가, 삶을 이어가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